

# 무빙스쿨

라온아띠 14기 캄보디아팀  
김종원, 김한길, 서나래, 정다솔

## 1. 주제 + 우리가 기대한 사람, 이야기

주제 : 지자체에서 주도해 진행한 마을개발 사례 살펴보기

우리가 기대한 사람, 이야기 :

- ① 지중해마을 - 지중해마을은 개발 전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중해마을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선주민들은 변화를 어떻게 느낄까?  
전국의 다른 '테마마을'들과 다른 지중해마을만의 특색은 어떤 게 있을까?  
개발 과정에서 개발 주체들과 마을 주민들간의 갈등은 없었을까?
- ② 미나릿길벽화마을 - 벽화를 그리기 전의 마을 모습은 어땠나?  
벽화를 그리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을까?  
선주민들이 느끼는 변화는 뭐가 있을까?  
선주민들은 지금의 마을에 만족할까?

## 2. 만난 사람들

총 33명

-만날 것을 예상한 사람들:

탕정면 사무소 직원 아주머니2  
지중해 마을 할아버지  
지중해 마을 노인정 할머니6  
탕정 산업 직원3  
지중해 마을 가게 주인2  
미나릿길 슈퍼 아주머니  
미나릿길 노인정 할머니/할아버지

-예상치 못하게 만난 사람들:

천안역 역무원  
천안역 여행안내 센터 아주머니2  
아산역 여행안내 센터 아주머니  
택시기사 아저씨3  
작은 도서관 사서 아주머니  
희재  
희재 어머니  
희재 할머니  
중앙초등학교에 다니는 여자아이2  
중앙초등학교에 다니는 남자아이3  
닭집아저씨3

### 3. 새로 알게 된, 발견한 사실과 이야기

#### ▷ 지중해마을 -

지중해마을의 주변에는 관광객을 유치할 만한 다른 장소들은 전혀 없었다.

지중해마을 바로 옆으로 삼성의 임직원들이 거주하는 엄청난 고층의 트라펠리스 아파트 단지가 있었다. 그 때문에 마을의 1층에 입지한 가게들은 전부 고가의 옷가게와 고급 음식점들 뿐이었다.

마을 지역에 개발 전 거주하고 있던 선주민들은 때부자가 되었다는 택시기사님의 의견도 있었다.

마을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셨던 할머니들은 삼성에 다소 반감을 갖고 계셨다. 삼성이 마을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하셨다. 택시기사님의 의견과는 다소 다른 말씀이었다.

또 다른 마을의 할아버지께서는 기존에 마을에서 거주하고 있던 주민 중 50~60분의 마을 주민들만이 직접 마을개발에 참여해 지금까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 ▷ 미나릿길벽화마을 -

미나릿길마을에 벽화를 그리기 전에는 마을 거리에는 쓰레기도 많고 어두운 분위기였다고 한다.

마을주민분들은 벽화를 그린 후 마을의 분위기가 밝아져 만족한다고 하셨다.

벽화를 그린 후 초기에는 관광객들이 와서 거주하는 집의 창문을 두들기는 등의 행동을 계속 해서 다소 불편함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일들을 줄어 들었다고 한다.

미나릿길벽화마을 바로 옆에 있는 천안중앙시장은 현재는 규모가 많이 줄었지만 예전엔 충청지역을 대표하는 시장으로 그 규모가 엄청났다고 한다. 그래서 이 주변 지역에는 시장에서 도매업을 하며 큰 돈을 번 상인들이 대체로 거주해 주변 지역 경제수준이 굉장히 높았다고 한다.

현재는 마을 주민 평균 연령이 높아 아이들이 없고 노인들이 많다고 한다. 지역에 있는 천안중앙초등학교는 한 학년에 학급이 한 개 밖에 없다고 한다.

#### 4. 사진으로 보는 무빙 스쿨



천안역에서 라오스, 미얀마 팀들과 출발하기전 사진 ㅎㅎ



귀찮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도 친절하게 대답해주시고 제일 유명한 호두 과자점도 알려 주셨던 관광안내데스크 아주머니들



천안역에서 아산역으로 가는 도중 모두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사진



지중해 마을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들렀으나 큰 소득 없이 나와야했던 탕정면 사무소



드디어 지중해 마을에 도착했다.



지중해 마을에 처음 도착해서 보았던 건 지중해 마을의 한 카페를 배경으로 학생들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지중해마을 안내센터로 알고 갔던 곳에서 예상치 못하게 만난 원주민 할아버지와 다정하게 사진도 찍고 탕정산업의 위치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탕정산업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탄소배출량도 줄이고, 받은 돈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다시 천안으로!



지중해마을에서 다시 천안으로 돌아와 중앙시장으로 가는 길에 캄보디아 식당을 발견했다.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친근한 느낌!



날도 덥다보니 배가 무척이나 고퍼져서 안내데스크 아주머니가 말해주신 중앙시장 흥두개 3000원 손칼국수집을 향해서 서둘러 들어갔다.



맛있는 집이라고 알고 간 데다 배도 고파서 맛있고 양도 많았던 칼국수집! 나중에 알고보니 흥두깨 칼국수 가게에 가는 길에 생긴 다른 집이었다.



칼국수로 배를 채운 우리 팀은 미나릿길 벽화마을을 향해서 갔다. 골목골목마다 담벼락에 예쁘고 아기자기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생각보다 미나릿길 벽화마을 돌아보는 게 빨리 끝나서 어딜 가야 지역 주민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 가게 된 벽화마을 건너편에 있던 작은도서관. 마을 이야기부터 소소한 이야기까지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힘든 여정에 쉴 곳도 제공해주신 예쁜 사서 아주머님.



작은도서관을 나와 다시 어디 가야할지 고민에 빠진 우리는 바로 옆, 중앙초등학교로 향했다. 오르막길을 오르자마자 한 쪽에 마련된 넓은 텃밭이 우리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텃밭에는 학생들의 이름과 번호가 쓰여진 꽃말과 다양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다.



텃밭에 계셨던 아이의 어머니는 우리에게 여기 있는 것들 다 먹어도 된다고 하며 이렇게나 많은 토마토를 따서 주셨다. 맛있었다!



한참을 이것저것 먹으라며 따주시고 텃밭을 소개해주시던 가운데 텃밭을 둘러싼 한 쪽 담장에 예쁜 해바라기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덥긴 했지만 햇빛이 참 예쁜 하루였다.



우리 귀여운 희재!! 텃밭에 계신 어머니는 바로 희재 어머니였다. 희재는 처음 보는 우리를 졸졸 따라다니며 텃밭을 소개해주고 가지도 따서 주었다. 희재와 희재 어머니, 그리고 저 뒤 편에 보이는 희재 할머니도 모두 우연히 만난 우리의 소중한 인연.



희재네 가족과는 인사를 하고 학교를 둘러보자 학교 한 쪽에 커다란 현수막이 하나 걸려있었다. ‘그게 너였으면 좋겠다.’



학교 뒤로 돌아가자 유치원과 함께 작은 놀이터가 있었다. 그 곳에서 놀고 있던 5명의 아이들은 예쁘고 해맑았다.



우리는 학교 뒤 놀이터에 있는 넓은 평상에 누워 잠시 여유로운 시간을 즐겼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를 커다란 나무들이 만들어주는 그늘과, 기울어지는 해가 주는 따뜻한 금빛 노을, 그리고 선선하고 기분좋은 바람을 즐기며 시간에 구속받지 않은 채 그냥 가만히 있었다.



학교에 들어올 때만 해도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하는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학교를 떠날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을 아쉬워하며 나왔다.



그렇게 우리가 향한 곳은, 벽화마을을 둘러보던 중 슈퍼마켓에서 만났던 아저씨의 통닭집. 통닭 값이 너무 비싸면 인사만 드리고 나오자며 조심스럽게 방문하는 길.



2만원 같은 만원, 아니 10만원같은 한 끼를 먹은 하루였다. 통닭집 사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린다.



통닭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던 사장님과 가게에 계셨던 사장님의 친구분. 다른 한 분도 사진에 담고 싶지만 못 담아서 아쉽다.

## 5. 각자 소감

**김중원** : 똑같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전주에서 천안으로 도시만 바뀐 것 뿐인데 지역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바라보니 ‘마당을 나온 톱닭’집 사장님과의 인연처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

**김한길** :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들이 너무나 특별했다. 이런 식으로도 사람 간에 만나고 관계를 맺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사람 간의 관계를 맺는 일을 내가 너무 과하게 걱정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마을 주민들과 만나는 일들이 곧 그 마을을 이해하는 일인 것 같다.

**서나래** : 나도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면서 다가오면 싫어하고 거부했다. 요즘 사이버 종교 권유나 그런 일들이 많아서 싫어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식으로 거부를 당할까봐 걱정을 했다. 그런 사람들도 있긴 했지만 생각보다 마을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한 시간이상 씩, 길게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정다솔** : 우리가 먼저 다가서서 말을 걸 때 경계하는 분도 계셨고, 모른다고 하시는 분도 많았지만 말을 걸 때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물어봐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하면 좀 더 쉽게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했다. 특히 작은도서관에서 사서 아주머니와 이야기할 때 처음엔 도서관과 마을에 관한 공식적인듯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내 얘기도 먼저 꺼내다보니 점점 마을의 사소한 이야기들을 알게 된 것 같았다. 그리고 우리를 반겨주는 마을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그냥 기분이 좋아졌다.